

익산역 유라시아 거점역 시민 염원 확산

범시민추진위 릴레이 캠페인, 거점역 기원 행사 등 진행

KTX 익산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염원이 확산되고 있다. 익산시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거점역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나가는 등 철도를 활용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역을 유라시아 거점역으로 지정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달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사)익산유라시아철도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익산역에서 다양한 관련 행

사를 개최했다. 추진위는 지난 추석 명절에 익산역에서 귀향객을 대상으로 유라시아 거점역 선정기원 행사를 열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앞서 지난해부터는 유라시아 거점역 선정기원 릴레이 1인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다.

특히 지역의 20개 기관단체와 상호 협력 협약을 맺고 익산역 홍보는 물론 유라시아 거점역 선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익산시도 홍보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27일 전북은행과 협

무협약을 체결하고 KTX 익산역의 유라시아 거점역 선정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전북은행은 관련 정기적금 특관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해나가고 시는 해당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라시아 거점역 선정을 기원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조형물도 KTX 익산역에 설치됐다.

기상 승차권 형태의 이 조형물에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일 등을 명시해 익산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담았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역발전의 염원과 익산시 행정력이 힘을 모아가면서 관련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시는 오는 23일 철도정책포럼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한편 11월에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선정 기원 행사와 정책세미나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한 국제역(익산역) 구축전략 연구용역을 10월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호남의 관문, 익산의 경쟁력인 익산역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낼 수 있도록 행정력도 관련 정책수립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2019 대한민국 홀로그램 엑스포'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원광대학교 동문 주차장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홀로그램 엑스포' 개최

25일부터 27일까지 원광대 동문 주차장서 열려

익산시는 전라북도와 익산시 주관하에,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홀로그램 엑스포'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원광대학교 동문 주차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익산시에 구축되고 있는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와 지난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 등 다양한 홀로그램 관련 사업 추진에 따라 홀로그램 산업의 육성 의지를 표명하고 '홀로그램 엑스포'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엑스포에는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한국조명ICT연구원 등의 유관기관과 20여개 홀로그램 관련 기업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참가해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을 전시·홍보한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평생학습주간 행사 개최

새만금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군산시가 시민이 함께하는 평생학습의 큰 잔치인 2019 군산시 평생학습주간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근대역 사박물관 일원 등에서 '시민이 함께하는 군산!·평생학습의 바다로!'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동네문화카페 야간 거리공연, 홍보·전시·체험부스 운영,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경진대회, 새만금아카데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토론회, 동네문화카페 성과발표회 및 평생학습인 예술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지난 14일, 15일, 17일 저녁, 구 시청광장에서 개최된 동네문화카

페 야간 거리공연은 작년부터 시민의 뜨거운 참여 속에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공헌을 한 찾아가는 평생교육사업인 동네문화카페 사업성과를 어린이와대와 함께하는 우물멜레, 통가타 연주, 가곡, 국악공연 및 사냥송 등 총 28개팀 공연을 통해 시민과 평생학습을 공유했다.

전시 공간 행사장에서는 폐품을 재활용한 생활소품 만들기·3D펜·도자기 공예 등 70여개의 시민 체험 프로그램과 캘리그래피·홀패션·문화학습 및 포크아트 등의 전시회가 개최됐다.

평생학습인 예술제 행사는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군산시니어클럽 팀까지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의 시민이 직

접 참여해 어린이 합창, 요가, 악기연주, 춤 및 가곡 공연 등의 무대행사가 개최되어 시민과 함께하는 알찬 평생학습 행사라는 평을 받았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관내 대학교 평생교육원 외에 충남 서천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 및 부안군 등 타 시군과의 평생학습 교류의 장이 조성되는 등 이번 행사는 명실상부한 군산시 최고의 평생학습 축제가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2019 군산시 평생학습주간 행사는 시민의 평생학습 성과를 시민과 공유해, 우리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데 역점을 두었으며 내년에는 더욱 많은 시민이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수송동, 아나바다 장터 개최

군산시 수송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경배)와 수송동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임성택)가 주관한 나눔과 희망의 애정촌 만들기 아나바다 장터가 개최됐다.

지난 19일 수송체육공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6백여 명의 참여자들이 생활용품, 의류, 장난감, 도서 등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판매한 가운데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했으며, 누리빛마을지역협의체와 수송동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의 신나는 공연이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통장협의회와 부녀회, 발전협의회,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봉어빵·감밥·닭꼬치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도록 기부했다.

이 외에도 '희망나무'를 설치해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시간을 가졌고 복지후원자를 발굴하는 천사모부스를 운영했으며, 건강체크 부스를 설치해 혈압·혈당을 체크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를 주관한 임성택 수송동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나눔과 배려, 자원의 절약이 공존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나바다 장터는 지난 2013년부터 7년째 이어져오고 있으며 슬로건처럼 '나눔과 희망'의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경제 활성화 미식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착수 보고회

군산 지역특화작목을 이용한 체험관광의 추진방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착수보고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군산 지역특화작목인 쌀, 보리, 밀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17일 군산미식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군산미식 체험관광의 추진방향과 사업일정, 홍보전략, 해양수산 복합 공간(구 수협창고) 활용 방안 등을 관련부서와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서 마련됐다.

군산미식 체험관광 콘텐츠개발은 군산의 역사와 쌀, 보리, 밀 등 대표농산물을 연계한 군산농업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보리를 이용한 수제맥주, 짬뽕, 빵, 향토음식을 지역 관광지와 연계하는 군

산미식 체험관광 코스를 설계한다. 미식산업 체험관광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복합 공간(구 수협창고) 1층에 체험 홍보관을 조성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면서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한 해양수산복합공간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운영기간 내에 협의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군산경제의 어려움 속에 이번에 추진하는 군산미식 체험관광 용역을 통해서 지역농산물 소비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공모사업 선정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에 2억4000만원 투자

익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0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시는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에 국비 1억원과 시비 1억4000만원 등 총 사업비 2억4000만원을 투자해 태양광 발전장치 100kw를 설치하고, 가동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도 함께 구축한다.

특히 센터에는 2014년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로 80kw, 2017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50kw 등 총 130kw의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운영 중에 있어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총 230kw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해져 패션단지 입주기업의 생산원가 절감과 제품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문화콘서트'

익산시는 지난 19일 오후 1시부터 신동 대학교(복일초대로변)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 문화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전라북도와 익산시 주최,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청소년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해 화합의 장이 됐다.

행사는 청소년 거리페스티벌과 팝페라, 댄스, 보컬, 비트박스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진행됐다. /익산=장인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